

# 익산, 백신 접종 준비 만전

### 정현울 시장, 26일부터 실시 앞두고 실내체육관서 운영현황 등 점검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6일 정현울 시장은 지역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익산실내체육관을 찾아 사전 점검과 준비 상황, 필요 장비 구축, 인력 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 시장은 실내체육관 자가발전시설과 냉난방, 환기시설, 응급의료기관 연계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방접종 시행과정과 의료인력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익산지역 만 18세 이상 전체 접종 대상자 24만10367명 가운데 상반기까지

접종하는 우선접종 대상자는 8만4234명이다. 시는 3월까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5452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병원 내 자체접종, 노인요양·정신재활 시설 등은 보건소 방문팀이나 위탁의료기관 등이 방문해 접종을 실시한다.

2분기에는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시는 하반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실내체육관에 지역예방접종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어 참여 희망을 밝힌 의료기관 81곳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한다. 대규모 접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사회와 의료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백신은 종류별 특성에 따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안센백신을 접종하고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 확보부터 대상자 관리, 위탁의료기관 지정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 군산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유지

###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로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확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를 통과해 2022년 2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군산대학교는 교육국제화역량 우수대학으로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I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인증은 교육부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의 질 관리를 제도화해 한국교육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유지와 관련하여 박시군 국제교류교육원장은 "군산대가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을 검증 받게 됐다"며 "이에 걸맞게 군산대의 교육국제화 강화에 더욱 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2017년 3월부터 인증을 취득한 군산대학교는 인증대학 모니터링에서 필수지표인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핵심여건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및 의료보험 가입률 등 전체 4개 지표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2022년 2월까지의 인증 유효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유지로써 군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사증발급심사를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인증 대학의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확대학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인증을 유지한 군산대학교는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을 비례 제한 없이 정원 외로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대학 홍보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게 됐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 시내외 권역 하수도정비 대대적 추진

### 2025년까지 원도심 및 개정동 등 시내 정비

군산시는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원도심, 조촌동, 구암동, 개정동, 성산면, 산북동 등 군산시 관내에 총사업비 1,97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 일원은 현재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잇따라 금암분구와 구암·조촌분구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결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하천 및 해양 수질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개정동, 사정동, 개정면 일원의 개정분구는 올해 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금암분구 및 성산 단단위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금년 공사 착수해 오는 2023년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인 산북동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하면 펌프장 및 우수지 등을 통해 배수능력을 향상해 집중호우와 해수 상승과 하수관로 내 역류로 인한 도시 내수침수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면 시가지 침수예방은 물론 생활오수와 우수를 분리함으로써 가정마다 개인정화조가 없어서 분뇨수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우수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하고, 오수는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적극 나선다

### 아동보호팀 신설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익산시는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통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처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통합사례회의를 활성화해 조사와 판단, 사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출동 시 적극적인 사례 판단으로 분리 조치를 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즉각 분리, 학대 행위자 수사위뢰 등에 나선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협약 추진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정서적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찰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

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한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즉각분리제도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심 제고를 위해 '내고장소식지'와 '세금고지서'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인식 개선과 신고 강화를 꾀한다.

시는 올해 초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과 위기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 확대

### 올해 70억원 판매 목표

익산시는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70억원 판매를 목표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오픈마켓 판매처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개편해 농산물 판로를 강화한다. 또 시민모니터링 운영 시 소비자가 제품을 받는 배송완료 상태까지 점검하는 등 강화된 품질관리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한다.

아울러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입점신청 방식을 도입해 농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익산지역 마을전자상거래에는 549개 농가가 입점해 당초 목표의 4배인 3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더불어 익산몰과 오픈마켓(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옥션)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판매, 농가지원(택배비, 택배박스, 오픈마켓 수수료)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명절과 감정시즌 등 다양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익산 다이로움 10%페이백, 익산몰 5%적립)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동농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원광대 HK+연구단 18일 온라인 학술대회

원광대학교는 한중관계연구원·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단이 제20차 국내 학술회의를 오는 18일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북아 교역·교류의 사상지형과 지역질서'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회의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추를 통해 현재 정치를 극복할 단서를 탐구하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지역질서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학술회의 1부에서는 한승훈(원광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천춘화(원광대)·김은하(서울대)·유승환(부산대)·이윤범(원광대)·박성호(원광대) 교수 등이 동북아 지식문화 네트워크와 사상지형의 단면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다.

2부는 김주용(원광대) 교수 사회로 유지원(원광대)·권의석(원광대)·염송심(중국 북화대)·유지아(원광대)·정규식(원광대) 교수가 동북아 교역 네트워크와 지역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줌(Zo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마을하수도 정비 추진

군산시는 농어촌 마을환경개선과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구, 옥산, 고군산(신시, 무녀), 어청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사업비 335억원(국비 224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75억원)을 투입해 정수지구(개정), 하정근지구(서수)에 각각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1.3km, 6.6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환경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